

# 拷問경관넷來週拘束 결정

金檍泰씨 사건

특별검사, 傍證조사 마무리

1989. 2. 10 - 김근태

# 傷痕목격자등 혐의 충분 犯行부인땐 金씨와對質

공범 李根安경감 잠적으로 拘束미뤄와

金檍泰씨고문 재점찰사  
결정에 따라 독지·폭행 혐의  
로 재판에 회부된 전직 인부

대구부수도지사 백남경(53)·

金秀顯경감(55)·金永과(50)·

(50)·崔商南경위(41) 등 4명이 대한 구속여부가

명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공수후지담당 지정  
변호사(특별검사)인 韓國  
변호사는 9일 하오 박교고인  
들과 함께 치안본부 대검찰실  
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鄭道서  
대로 이름에 대한 구속을 담  
발증조사를 마무리지었다.

술법호사는 이날 「조사결과  
피고인들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주 중 피고인을  
수용 1차 조사를 마치는  
를 솔직히 고문상처를 빛나는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술법호사는 지난해 12월 15  
일 서울고법형사3부(趙悅來  
부장판사)가 金檍泰씨의 재점  
심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  
판에 회부함에 따라 1차 조사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술법호사는 51·  
재판부는 달빛 이름과 품법  
관계에 있는 李根安경감·  
과장관·피고인 중 崔商  
남경위 등을 소환 조사했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구속된 후  
고법이 부심판결정을 통해  
밝힌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술법호사는 「조사결과 서술  
한 대로 1명씩을 선별 풀려나게  
하는 것으로 이같은 내용은 법정에서  
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鄭光哲기자】

경찰이 잡아온 바탕에  
서 金檍泰씨를 고문한 사실  
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법원에 출석할 때 金씨와 대질  
되나 필요하다면 金씨와 대질  
실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또 서울고법형사3부는 재  
점찰사건 심리 당시 증거 조  
사를 위해 金씨를 피고인과  
서울수치소 교도관, 韓哲연  
호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  
한 결과 서울수치소 보안과  
원이 金檍泰씨를 검색했을 때  
발휘금지 고문상처를 발견한  
두 명이 金檍泰씨를 발견한 사실  
를 미루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술법호사는 지난해 12월 15  
일 서울고법형사3부(趙悅來  
부장판사)가 金檍泰씨의 재점  
심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  
판에 회부함에 따라 1차 조사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鄭光哲기자】

1989년 2월 10일  
치안본부 대검찰실  
에서 金檍泰씨를 고문한 사실  
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법원에 출석할 때 金씨와 대질  
되나 필요하다면 金씨와 대질  
실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  
다.  
또 서울고법형사3부는 재  
점찰사건 심리 당시 증거 조  
사를 위해 金씨를 피고인과  
서울수치소 교도관, 韩哲연  
호사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  
한 결과 서울수치소 보안과  
원이 金檍泰씨를 검색했을 때  
발휘금지 고문상처를 발견한  
두 명이 金檍泰씨를 발견한 사실  
를 미루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술법호사는 지난해 12월 15  
일 서울고법형사3부(趙悅來  
부장판사)가 金檍泰씨의 재점  
심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재  
판에 회부함에 따라 1차 조사를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鄭光哲기자】

## 고문경관 4명 구속 요청키로

김근태씨사건 지정변호사 3월중 재판열릴 듯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찰관 4명에 대한 공소유지 담당 지정변호사 김창국씨는 10일 “그동안 김근태, 문용식씨 등 고문피해자들을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송선홍씨 및 교도관 등에 대

110 - 제200000000 - 김근태

1989. 2. 11

한 방증수사를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재판부(서울지법 합의 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에 이들의 구속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은 2

월말께 있을 법원인사 뒤인 3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백남은(53) 경정, 김수현(55) 경감, 김영두(50) 경위, 최상남(41) 경위 등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이 10일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이 선임한 변호사는 이 용식(55), 김양남(48), 이찬욱(43), 김병남(41)씨 등 4명이다.

## 각종 고문사건 수사 ‘실종’

500 - 고문 - 이근안  
1989. 2. 15  
검찰 “숨은 이근안씨 어떻게 찾나” 뒷짐만 정부·여당, 법질서획립 말뿐 소극자세 일관

검찰이 고문사건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이 잠적한 지 53일이 되는 14일 현재까지도 실마리 하나 잡지 못한 채 오로지 이 경감이 제발로 걸어오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1월 11일 ‘반제 동맹당 사건 관련자’ 등 12명이 이 경감 등 사건 당시 경기도경대공분실 소속 경찰관 12명을 두 직·폭행혐의로 고소했는데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고소인의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검찰 간부들은 한결같이 “이 경감은 김근태씨 고문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백남은 경정 등 경찰관 4명의 재판이 시작된 뒤에나 나타날 것”이라며 “숨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고 말하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자세에 발맞추어 공권력과 법질서의 확립을 누누이 강조해온 정부여당에서도 이 경감의 검거문제에 대해 적극

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자세는 과거 관계기관이 시국관련 수배자 검거를 위해서 1계급 특진에 거액의 현상금 까지 걸고 일선 수사관들을 다그쳤던 것에 비하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검찰은 반제동맹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경감의 잠적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소인 중엔 이 경감 외에도 한종철·이강원씨 등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찰관들이 있어 검찰의 주장은 단지 수사를 기피·지연하려는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소인 및 재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이 경감이 없더라도 소재가 확인되는 나머지 피고소인들부터 소환해 조사를 벌였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충렬(29)씨 등은 고소장에서 86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시 만수동에 있는 경기도경대공분실에서 이근안·한종철·이

강원씨 등 경찰관들로부터 날개 꺽기·관절꺾기·통닭구이·고춧가루고문·물고문 등을 쉽없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고문후유증인 신경통·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고소인들은 “이제껏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일이 없다”며 “도대체 검찰이 수사할 의도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사건의 경우 처리

기한이 3개월로 되어 있어 아직 여유가 있으며 기한 내에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막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데야 법조계에서는 과거 김근태씨 고문사건처럼 고소·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얼마든지 처리기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 수 있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무엇보다 검찰의 기본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考問 —우리가 잘겠다 —

1989. 2. 18 국민



李根安씨

민가협  
—  
전단·스티커  
배포 : 현상수배  
—  
「李根安국민搜查선언」

경찰과 검찰이 잠적한 고문기술  
사 李根安경감(51)의 소재조차 파  
악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화실  
천가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李小  
仙)가 李씨를 전국에 현상수배하  
겠다고 나섰다.

민가협은 18일 재야단체와 합동  
으로 오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경찰과 검찰이 李씨를 놓았는 것  
이 아니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피해자의 가족들인 민가협이  
李씨를 수배하게 됐다』고 밝혔  
다.

민가협은 李씨를 붙잡거나 붙잡  
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한 사람, 또  
는 정확한 은신처를 알려주는 사  
람에게 현상금을 주기로 하고 모  
금을 통해 현상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상금은 1백만원으로 잠정 결  
정하고 있으나 고문피해자가족들  
의 현상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  
에 따라 모금이 순조로울 경우 3백  
~4백만원선으로 올릴지도 검토  
중이다.

민가협은 또 「고문기술자 李根  
安을 시민의 손으로 체포합시다」  
라는 제목에 국가안전기획부 철폐  
·반민주악법폐지·고문책임자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과 스티커  
를 대량 제작, 민가협·재야단체·  
학생등의 조직을 통해 전국에 배  
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 잠적60일 단서 못찾아

검찰은 그동안 대검증수부 4과  
와 서울지검 수사반, 전국 각급지  
검수사관을 총동원해 李경감의  
검거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단서조  
차 잡지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달 11일  
「反帝동맹단사건」관련자 11명이  
李경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李경감을 독직·폭행혐의  
로 고소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할  
조사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관계기관들은 시국관  
련 수배자검거를 위해 1계급특진  
과 현상금까지 걸고 일선수사관들  
을 다그쳤었던 관행에 비할때 무  
려 60여일간 국내에 있는 李경감  
을 찾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  
렵다는 지적이 광범하고 있다.

# 민가협, 이근안씨 현상수배

500-210-0000 1989. 2. 19.

당국 60일째 뜻 잡자, 자진 설은 전단 배포

## 현상금 1백만원

검찰과 경찰이 고문기술자 이근안(51)씨를 잡자 60일이 지나도록 잡지 못하자 재야단체인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공동의장 이소선)가 직접 나서 이씨를 현상 수배하기로 하고 오는 21일 재야단체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현상금은 1백만원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가협은 신고자의 연락에 의해 이씨의 소재지가 확인돼 경찰 또는 시민이 검거해도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가협이 제작중인 수배전단에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을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에 "당신의 자녀

도 고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고문경찰을 퇴치합시다"는 문구와 "신장은 172~3cm 정도이나 체중이 90kg 이상 나갈 정도로 등치가 크고 얼굴이 불독같이 혐악하게 생겼음"이라는 인상 착의가 사진과 함께 적혀 있다.

민가협은 또 △고문 폭압기구 안기부·보안사·치안본부대공수사단 해체 △이근안을 통해 고문수사를 지휘한 치안당국자 색출처 벌 △경찰은 이근안의 도피행각의 방조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구속하여 고문사실을 규명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스티커와 전단을 대량으로 제작 민가협 등 전국의 재야조직을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

민가협은 이 경감에 대한 현상 수배를 하는 데 대해 과거 수사기관이 시국 관련 수배자 검거를 위해 1계급 특진과 수백만원의 현상금까지 걸고 수사관들을 다그친 데 비해 이근안 경감을 고소한 '반제동맹당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검찰과 경찰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白 南 股 殿 회원 (43)	前 現 재정경찰로 고문사건과 관리	前 경관 4명 金權泰씨	民 青 聲 의장 2차 金權泰씨	高 문사관 2차 金權泰씨
前 치안본부로 결정 (53)	등 결정 (56) 대국주에 법 결판	4명에 대법정에서 10시 2차 공판이	10시 2차 공판이	10시 2차 공판이
등에 대법정에서 10시 2차 공판이	4명에 대법정에서 10시 2차 공판이			
등에 대법정에서 10시 2차 공판이	4명에 대법정에서 10시 2차 공판이			

## 고문경찰을 국민이 잡는 대서야

在野단체인 民家協(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은 도피중인 고문전문가 李根安경감을 잡기 위해 李씨를 전국에 현상수배키로 했다.

당국이 李씨를 검거하는 것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국민 스스로가 범인을 잡으려 나선 것이다。治安當局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在野단체가 대신 나섰다는 것은 政府에 대한 통렬한 不信感의 表現으로 볼 수 있다。

500-3월-이준호  
고문전문가 검거를 재야단체가 국민운동형식으로 선언한 것은 사실 엄통한 느낌을 주는 측면이 없지도 않다。그러나 다수 국민은 民家協의 李씨현상수배가 있을 법한 일로 이해하고 있다는데 오늘의 시대적 문제가 상징적으로 합축되어 있다。

李씨가 잠적한지 60여일이 지났으나 그의 행적은 五里霧中 상태다。지난날 그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11명의 피해자가 검찰에 집단으로 고소를 제기했으나 이렇다 할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경찰은 그를 단순히 「경찰관 무단직장 이탈」이란 혐의로 전국에 수배를 했을 뿐이다。해외도피설이 나오는 등 여론만 그를 추적하고 있을 뿐, 사실상 李씨 검거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아 국민의 비난을 샀다。이런 저런 정황으로 미루어 그가 「권력의 비호」나 묵인 아래 숨겨져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못잡는 것이 아니라 안잡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民家協의 현상수배 선언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 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정부당국이 不信을 당한다면 어떻게 公權力이 권위를 가질 것이며 폭넓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

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다。정부가 진실로 그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필코 찾아내어 죄상을 공개해야 한다。

그의 검거는 단순한 고문혐의자 한 사람을 잡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진중인 民主화의 완성을 위한 한 단계적 작업이기 때문이다。民主화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사회제도와 도덕성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장 反人倫的인 고문기술자가 아직도 그 죄과에 대해 응징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時代를 연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는가。

民家協은 과거 수사기관이 시국사건관련 수배자검거를 위해 걸핏하면 1계급특진과 현상금을 걸었던 사실과 비교, 李씨 수배에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이기도 하다。당국이 그의 검거에 노력을 않는 것은 民主化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결코 가벼히 봐선 안될 것이다。

그는 단지下手人일뿐이라는 감상적 동정론은 경찰내부에 있을 수도 있다。이런 동정론은 경찰이 과거의 잘못을 과감히 척결하고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서도 버려야 한다。경찰이 政治權力의下手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아픔을 참고 거듭 태어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1989. 2. 20. 국민

人權이 없는 곳에 民主화란 있을수가 없다。우리가 正義로운 밝은 사회를 건설하려면 고문과 같은 야만행위는 다시 없어야한다。李씨를 검거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 밝은 사회를 건설하는 길이다。정부는 죄를 범한 한 경찰관을 감싸주려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는 끝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이근안경감 파면키로

1989. 2. 21. 치안본부, 무단이탈 이유

치안본부는 오는 28일 정계위원회를 열고 김근태씨 전기고문 사건과 관련, 지명수배중인 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1) 경감을 무단 직장이탈을 이유로 파면 조치할 방침이다。

치안본부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 관보를 통해 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공시하고 이 경감의 주소지에 출두요구서를 발송했다. 이 경감은 고문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12월24일 잠적한 뒤 경기도 경에 사직서를 우송했는데 지금 까지 수리되지 않고 있다.

金權泰씨 고문警官 넷 직위해제

500-26-11-11-11

국회제작자료서 밝혀

전민청원의장 **金權泰씨**(42)  
고문사건과 관련 서울고법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  
부된 치안본부 대구호수사단 소속  
白南殿경정을 4명의경찰  
관이 지난 1월 6일자로 직위  
해제됨으로 밝혔다.

1000-26-11-11-11  
포름 실장 5명이다.  
7 일만인 지난해 12월 31일  
직위해제된 전경기 도경 골안  
李根安경감(50)을

치안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직경정  
과 **金秀顯경감** **金榮과**  
商南경위등 재판에 회부될  
사유를 밝혔다.

이들 4경찰관에 대한 치안부의  
직위해제조치는 지난 12월 15일 서울고법에서 3  
부에 의해 **金씨가** 저기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20여 일  
만에 추진 것이다.

해 (재판장 趙煥來부정관사) 3  
부(재판장 **趙煥來부정관사**) 3  
에 의해 **金씨가** 저기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20여 일  
만에 추진 것이다.

부(재판장 趙煥來부정관사) 3  
에 의해 **金씨가** 저기한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20여 일  
만에 추진 것이다.

“간첩검거나 도울 일이지”

○… 지난 21일 민주화실천가족 운동협의회가 잠적중인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에 대해 현상금 1백만원을 걸고 지명수배하자 이 경감 수사를 맡고 있는 검찰은 이를 매우 불쾌해 했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민가협

500-26-11-11-11  
나름다의  
1989. 2. 25

검찰간부 “이근안경감 공도 많았다” 두둔  
‘천호중 배정불만 농성’에 지역주민 반발

등 재야단체들이 정작 중요한 간첩검거 등에 협조할 생각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인다”고 엉뚱한 불평을 한 뒤 “이 경감을 포함한 대공·공안분야의 경찰관들이 간첩 잡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는데 재야에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해 보도진을 놀라게 했다. “검찰 간부의 생각이 그러니 이 경감 검거를 검찰에 기대한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고 보도진의 견해가 일치.

## 국민이 경찰관을 현상수배하다니

검·경은 이근안씨를 계속 놓아둘 것인가?

1989. 2. 25

나라에 수사기관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검찰과 경찰이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을 두 달이 넘도록 잡지 못하자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1백만원의 상금을 내걸고 이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민가협의 회원인 어머니들은 이씨의 사진과 신체의 특징 등을 담은 전단을 거리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모자라서 이 경감을 잡지 못한다면 이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씨를 잡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과 성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더구나 경찰의 일각에서 일선경찰관들이 이씨가 동료라는 이유로 '우정'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런 말을 듣는 국민들의 말문은 닫히고 만다. 수많은 민주인사와 대학생, 한 푼의 월급을 더 받기 위해 온몸으로 싸우던 노동자들의 판절을 뽑고 전기고문을 하는가 하면 물을 강제로 먹여 자백을 강요하고 억울한 육살이를 시킨 그 회대의 범죄자를 '동료경찰관의 우정'으로 감싸고 있다니 이 지경이 된 경찰조직이 민주사회에 치안 유지를 말을 자격이 있는가? 국민들이 깡패들의 조직에서나 볼 수 있는 이 기막히고 회한한 '의리'에 찬사라도 보낼 것 같

은가? 500-240-1207

우리는 이근안씨를 빨리 잡아야 하는 당위성과 검찰·경찰의 직무태만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이 이씨를 잡는 일에 성의있게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답화를 발표해서라도 이 경감의 검거를 재촉하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당국이 민가협의 이근안씨 현상수배를 한 재야단체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성가신 행동 정도로 여길다면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극악한 범죄자를 잡아야 할 경찰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면 경찰은 다른 범죄자도 잡아 처벌할 명분을 잃게 되며 국민들에게 범죄를 신고해 달라고 할 엄치조차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국가권력의 담당자인 경찰의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한 경찰관의 비행이나 죄과를 처단하지 못하는 현실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비호함으로써 경찰, 나아가서 공권력 전체가 빠지게 될 불신의 높이다. 국민이 경찰관을 현상수배한 사례가 지구상의 다른 어느 나라에 있는가? 부끄럽고도 두려운 일이

## 이근안경감 파면

【수원=배경록 기자】 경기도경은 28일 오후 2시 정계위원회를 열고 김근태씨 전기고문혐의로 수배중인 전 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1) 경감을 파면했다.

이 경감의 파면시유는 직장 무단이탈이다. 500-240-1207

「이로써」 이 경감은 공무원법에 따라 「퇴직금을 치급받지 못하게 됐으며 공무원 일용자격은 박탈당했다. 1989. 3. 1

## “이근안 경감 고속버스 상경” 제보

### 민가협 회원 확인 소동

500-29 - 이근안 1989. 3.

고문 기술자로 검찰·경찰·채야 단체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전 경기도 경 공안분 실장 이근안(51) 경감이 1일 오후 고속버스편으로 서울에 도착한다는 제보에 따라 경찰과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회원 등 재야단체 회원 20여명이 서초구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으로 나가 확인했으나 제보된 사람은 이 경감이 아니라 인상이 비슷한 다른 승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 경주발 서울행 광주고속버스 3대에서 내린 승객을 계속해서 살폈으나, 이 경감으로 제보된 사람은 오후 6시30분에 도착하는 광주고속 전남6 바1025호(운전사 이재권·43)

승객 우아무개(38)씨로 판명됐다. 이날 제보내용은 경주에서 이 경감이 각각 오전 11시40분 발 고속버스와 오후 1시40분 고속버스를 탔다는 것으로 평민당과 전민련에 접수됐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평민당에서 연락을 받고 형사기동대와 대공과 경찰 등 10여명을 출동시켜 오후 3시40분 도착 고속버스와 오후 5시6분 도착 고속버스를 살핀 다음 철수했고, 이 경감의 고문피해자인 박문식(30)씨를 불러온 재야단체 회원들은 오후 1시40분 경주발 오후 6시30분 서울도착 고속버스편까지 살펴 제보가 우씨를 이근안 경감으로 오인한 것으로 확인한 뒤 철수했다.

## 동네방네

“경주차다.” 공휴일인 3·1절 오후 부적거리는 서울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에서 20여명의 사람들이 고속버스가 도착할 때마다 500-29 1989. 3. 29. 여진안 버스 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이날 경주에서 김명석(23·학생)씨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으로 보이는 사람이 녹색 양복상의를 입고 오후 1시 40분 경주발 서울행 고속버스에 탔다”는 제보를 해옴에 따라 이 씨를 체포하려고 달려나온 민가협 회원과 전민련 간부 그리고 이 경감으로부터 고문당한 박문

식(30)씨 등이었다. 이들은 제보에 반신반의하면서도 ‘고문기술자를 내손으로 잡는다’는 각오로 도착예정 2시간 전부터 터미널에 나와 경주에서 오는 차들을 낱낱이 살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경감이 탔다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6시30분 경주발 서울행 광주고속 전남6 바1025호(운전사 이재권·43)가 하차장에 서서히 들어왔다.

‘이근안 체포대’와 함께 그동안 눈치챈 터미널 직원,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녹색상의의 승객이 내렸다. 그는 이 경

감이 아닌 우아무

개(38)씨로 밝혀져 오래 동안 기다리

던 사람들을 실망시켰다. 그러

나 터미널을 떠나면서 박문식씨

는 실망하지 않았다.

“먼곳에서도 제보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 고문기술자 이경감은 국민의 시선에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경찰은 최소한 이 경감의 최근 사진이라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걸 기자〉

## 국민에 포위된 고문기술자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았겠어요.”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형사기동대원들은 경주발 서울행 광주고속 버스 2대를 살펴보고는 이 씨가 탔다는 차의 도착 예정시간 1시간 전에 푸념섞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다.

옹성거림과 이리뛰고 저리뛰는 분주함 가운데 드디어 오후

고문기술자 이근안 잠적 석 달째

# “안가에 있다 술운만 무성”

일요

1989. 3. 19

(20 - 21 - 이준이)

## 민가협 현상금 1백만원 전국에 체포령 검찰 경찰 미지근한 태도 아직 여전

지난 80여일, 고문기술자로 지목된 이근안경감(52·전 경기도경공안분실장)은 어디에 있는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80여일이 지났지만 이경감의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경감에 대해 '직장무단이탈 경찰관 전국수배' 지시를 내린 지난해 12월27일 이후 몇 차례의 특별지시 전통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으나 실적이 없어 이 역시 '하는 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경감에 대해 내려진 수배의 내용 또한 '고문'이라는 범죄의 혐의자로서가 아니라 '직장무단이탈자'라는 사실만 보아도 검찰이나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치안본부는 지난 2월28일 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무단 이탈이라는 사유로 이경감을 파면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24일 이경감이 경기도경에 사직서를 우송한 뒤 2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고 있다가 내려진 결정이어서 검찰이 이경감을 여전히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잠적 60일째 되던 지난 2월21일 민주화실천기족

고문경찰 이근안 현상수배



\* 고문경찰 : 경찰 고문은 고문경찰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경찰 고문은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경찰 고문은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져 왔다. 1980년대 경찰 고문은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져 왔다. 1. 김봉은 최근 경찰 고문경찰에 대한 보도가增多되면서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고 있다. 2. 김봉은 최근 경찰 고문경찰에 대한 보도가增多되면서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고 있다. 3. 김봉은 최근 경찰 고문경찰에 대한 보도가增多되면서 경찰 고문이라는 명칭이 대중화되고 있다.

민주화실천기족 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인권위원회

◇ 지난 2월21일 민가협은 현상금 1백만원을 내걸고 이경감을 현상수배, 국민적 차원에서의 수사를 선언했다.

그들은 “민주인사 한명을 불잡기 위해 경찰은 현상금 1천만원에 일계급특진을 걸고 있다”면서 범죄행위가 분명한 이근안씨를 현상수배하지 않는 저의가 괴심하다고 덧붙였다.

운동협의회(공동의장 이소선)는 1백만원을 내걸고 이경감을 현상수배, 이경감에 대한 국민적 차원에서의 수사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이 날의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경찰은 민주인사 한 명을 불잡기 위해 현상금 7백만원, 1천만원에 일계급특진을 걸고 수배해 왔다는, 범죄행위가 분명한 이근안씨는 현상수배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경찰은 이경감의 도피행각에 대한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가협측은 이경감을 고소한 ‘반체동맹당사건’ 관련자 11명에 대한 고소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검찰과 경찰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가협을 비롯한 재야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경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고 검찰의 수사도 특별

을 방지하는 걸 보면 검찰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근안씨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됐다고 재정신청을 내 받아들여진 김성학씨도 “현재 이씨가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보면 너무나 뻔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고문기술자가 아직도 내가 낸 세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문에 의한 피해당사자나 재야단체에서 이경감이 모처에서 보호받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로는 ▲ 이경감이 검거될 경우 상급자에 대한 문제이 불가피해진다는 점 ▲ 이경감이 타기관에까지 ‘고문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검거될 경우 5공 시절의 고문사실이 날날이 밝혀지게 되고, 그 결과 공안관계 부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 등이다.

전민련의 박계동대변인은 “이경감이 검거돼 조사받을 경우 명령지휘계통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그렇게되면 경찰수뇌부의 관련여부가 곧바로 드러나게 되므로 이 사건이 의도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지난번 박종철군 고문사건 때처럼 검찰이 개입하면 틀림없이 축소·조작·은폐하려는 기도가 행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경감이 워낙 신체적인 특성이 두렷하고 그동안의 보도에 의해 얼굴이 상당히 알려진 상태이니만큼 이 사건의 해결은 전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에서 ○미용실을 하며 막내아들(14)과 함께 살고 있는 이경감의 부인

수사부가 1월말 해체되면서 이경감의 검거에는 사실상 손을 빼고 제발로 걸어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이르자 최근에는 ‘정부기관에서 이근안씨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민가협의 한 간사는 “이근안씨의 신병은 현재 정부가 숨겨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최근에 경북 지역의 모 성당에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으나 신빙성이 없었고 안가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근태씨(전민련 정체실장)의 부인인 인재근씨도 “이근안씨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더욱 날카로운 것 같다”고 전제하면서 “시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근안씨가 안가에 고이 모셔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씨는 “우리가 애초에 이씨를 고발할 때는 이름을 물어 ‘성명미상자’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후에 다시 이근안씨로 이름을 밝혀 고발하려 하니까 검찰에서 선수처 고발하겠다고 나갔다”면서 “그러려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그 부분

신아무개씨(50)는 “남편에게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느냐”면서 “경찰만 회생당하는 것 같았는데 안기부나 검찰에는 책임이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은 이경감의 검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재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얼마나 처리기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던 점을 상기시키고 무엇보다 검찰의 기본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87년의 한양대 본관방화사건도 이경감이 팀장으로 있던 수사팀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는데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지휘관인 이경감을 검거하여 조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김성학씨는 “금년 1월경 광주에서 이씨가 대공분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윤아무개 당시 광주 대공분실 정보계장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것을 천척이 목격했다”고 말하면서 “그후 윤아무개씨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주장했다. [조용준기자]

**이근안 현상금 2백만원으로**

1989. 3. 23. *민가협*

고문경관 이근안(50)씨에 대해 현상금을 걸고 자체수배에 나선 민가협은 현상금에 대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결과 모금액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씨에 걸린 현상금이 22일 현재 2백만원선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이와 함께 당초 1백만원으로 잡정 책정했던 현상금에 대한 모금운동을 계속 실시해 스남민전 가족 20만원 스반제동 맹당사건 가족 30만원 스노무현 의원 1백만원 등 지금까지 50여 명으로부터 모두 2백여만원을 모았다.

민가협은 “모금이 계속되는 대로 현상금 액수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안 경감 가계수표 사용**

1989. 4. *치안본부 추적조사*

하고 있다.

치안본부는 지난 21일 이 경감이 국민은행 수원지점에 개설해 잠적할 때 소지하고 있던 가계수표 18장 중 13장으로 1백16만4천 9백원을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계수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李根安경감 手票추적**

1989. 4. *경찰, 연고지 수사 강화*

지난 21일 가계수표로 116만원引出

1989. 4. *경찰, 연고지 수사 강화*

경찰은 경찰은 6만여 원에 대해 1백23만 6백53원을 예금잔고로 확정하였으므로 확정하였고 국민카드를 사용할 것으로 신고 협조를 요청했다.

86)에는 지난 3일 절계 해일 때 1백23만 6백53원이 예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2035055005051은 경찰의 예금계좌(번호 1)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되었다.

△李根安씨

# 고문경관 재판 의도적기피 의혹

金槿泰씨 고문관련 4명 회부 넉달째

전민련의장 金槿泰씨(43) 고문경관 4명이 재판에 회부된 지 28일로 1백34일이 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 등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前치안본부 대공분실소속 白南殷경정(54) 金秀顯경감(56) 金永우경위(51) 崔商南경위(42) 등 4명이 지난해 12월15일 서울고법의 부심판(付審判) 결정으로 재판에 회부된 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를 둘러싸고 법원 특별검사 검찰등이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바람에 재판절차가 난잡을 자고 있다.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趙悅來부장관사)는 사실상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85년 9월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갈월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등 金槿泰씨에 대한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었다.

이들은 최근 자신들에 대한 공판을 앞두고 돌연 주소지를 옮기

는 등 신변을 정리하고 있어 잠적해버린 李根安경감(52·수배중)과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원 「형사소송법상의 「예단법제의 원칙」과 「공소장 1본주의」에 따라 재판전에는 이를

그러나 재야법조계는 이에 대해 「법정구속이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빌미로 사법부가 검찰과 경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범 李根安경감의 잠적사건과 고문경관에 대한 국회고발사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향후 처리태도를 본 다음에 방침을 정하려는 시간벌기 수작」이

검찰은 金경감에 대한 국회의 위증혐의 고발사건을 접수한데다 공범 李根安경감을 검거하지 못한 채 앞으로 이 사건이 파헤쳐질 경우 검·경찰내부에 미칠 파문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검찰관계자들은 현행 법상 특별검사역의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

특별검사 이 사건 공소유지 담당 金昌國지정변호사는 이달초 金槿泰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 확보작업을 모두 마치고 「남은 것은 피고인들의 구속과 준엄한 사법처리뿐」이라고 밝혔다.

金변호사는 「그동안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방증조사를 통해 5백 풋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작성, 이들 고문경관 4명의 범죄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하고 있다.

金변호사는 「고문경관을 구속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고 재정신청사건처리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법원이 범죄

## 법원 범죄사실인정 불구 공판날도 못잡아 최근 주소지 옮기는 등 신변정리… 도주우려

에 대한 범죄혐의 사실을 포착할 수 없다며 법원은 아직 첫 공판날짜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金鍾植부장판사)는 28일 「재판이 시작돼 수사기록등 각종 증거자료가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도 가질 수 없으며 구속여부도 전혀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아무런 이유없이 재판날짜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 접수후 10개월만에야 수사에 착수, 두달뒤에 불기소처분결정을 내리고 말았던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법원에 의해 다시 뒤집혀지고 있는데 대해 당혹해 하고 있다.

들을 구속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권한이나 이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 신속한 재판절차진행을 내심 바라지 않고 있는 듯하다.

검찰은 또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발사건을 맡아 불기소처분결정을 해 현재 미묘한 입장에 처해 있는 당시 주임검사에 대한 증인신청여부와 관련해 난처한 입장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을 이미 인정한 이들 고문경관들을 빨리 구속, 심리해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잠적중인 李根安경감도 4명의 고문경관 구속등 이들의 신병처리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 검찰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4명의 고문경관에 대한 신병처리등 재판진행이 주목되고 있다.

〈韓柄權기자〉

## ‘국회위증’ 경관 기소중지 ‘김근태씨 고문’ 관련 2명 “김씨 소재 불명” 이유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근태씨 고문사건에 대한 증언과 관련, 위증혐의로 고발됐던 윤재호·김수현씨 등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경찰관에 대해 법무부는 수배중인 김근태씨의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기소중지할 방침임을 국회 내무위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13일자로 국회 내무

위에 보낸 공문에서 참고인인 김근태씨가 소재불명이어서 윤씨와 김씨를 기소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3일 열린 국회내무위에서 야당쪽 의원들은 “검찰의 태도는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며 정동성 위원장에게 수사촉구를 요구했으며 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증언에서 김근태씨를 고

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고문사건을 모두 부인해 지난 3월13일 국회 내무위의 의결을 거쳐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不法·폭력 척결 말뿐인가… 法網 뚫린건가…

# 李根安수배 5개월째 '감감'

## 창당방해 李宅敦·李承培씨도 아직 못잡아

국회  
고문경관 李根安씨 (51·前경기  
도경 공안분실장)가 지명수배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붙잡히지 않  
고 있다.

또 5共의 대표적 정치폭력사건  
인 통일민주당 창당방해 사건의  
배후로 긴급구속장까지 발부된 李  
宅敦씨 (54·前신민당의원) 李承培  
씨 (49·호국청년연합회장)도 수배  
된다 6개월 가까이 됐으나 꼬리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때 세상을 떠들썩  
하게 했던 탈주범들 金吉昊 (22) 權  
正賢 (23) 등도 오리무중이다.

최근 들어 정부당국이 불법·폭  
력척결을 소리 높여 외치는 등 「엄  
정한 법집행」을 다짐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들  
주요사건 지명수배자를 눈앞에서  
어물어물하다 놓치는 등 검거에 소  
극적인 인상을 풍겨 「못 잡는게 아  
니라 안 잡는게 아니냐」는 의혹까  
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들은 공안당국이 사안에 따  
라 공권력의 행사를 선택, 결정하  
게 된다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는 공권력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  
서 이를 사건 수배자의 조속한 검  
거·처리를 촉구했다.

△고문기술자 李根安前경감=  
잠적한지 24일로 만5개월이 경과  
하고 있으나 행적이 묘연한 상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5共비  
리척결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했으  
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검·경은 李경감 잠적 후 추적반  
을 편성, 검거에 나섰으나 「국내비  
호세력에 의한 은신설」 「해외도피  
설」만 무성히 나도는 가운데 감감

무소식이다.

지난 3월22일에는 민주화실천  
기족운동협의회가 「온 국민의 지  
지와 성원을 모아 직접 체포에 나  
서겠다.며 현상금 2백만원을 내걸  
기까지 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李경  
감외에 白南殷경정 金秀顯경감 金  
榮斗·崔商南경위등 5共때의 당시  
대공경찰들이 연루돼 있어 계속되  
고 있는 「고문시비」의 종결을 위  
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중요현  
안으로 꼽히고 있다.

△통일민주당지구당 창당폭력  
방해사건 관련 李宅敦전신민당 의  
원·李承培씨=지난해 11월 서울지  
검 남부지청에서 속칭 「용팔이사  
건」에 대한 수사착수 직후부터 잠  
적, 1백70여일이 넘도록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87년 4월 金洙三  
·金大中씨등 이른바 「양금」이 통

일민주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폭  
력배 1백여명이 공공연히 이를 방  
해한 5共시절의 대표적 정치폭력  
사건.

검찰은 양季씨에 대한 긴급구속  
장까지 발부, 총력을 기울이는 듯  
하고 있으나 얼마전 잠실 교통회  
관 호국학생연합창립총회장에 나  
타나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사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 등

지명수배자로서는 납득하기 어려  
운 대담한 행동을 했던 李承培씨  
의 경우 「안 잡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결정적으로 불러일으켜  
주었다.

또 관계기관의 배후지원설까지  
나오는 李前의원의 경우 지명도가  
높기 때문에 공안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 여  
론이 높다.

## 김근태씨 고문 경관 4명 첫 공판

1989. 6. 28 오전 10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 사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 백남은(53·경정), 김수현(55·경감), 김영두(50·경위), 최상남(41·경위) 피고인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재판에 회부된 지 6개월 반 만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6. 22

백 피고인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며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는 특별검사(지정 변호사)인 김창국 변호사가 맡는다. 백 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가 김근태씨의 부인 인재근씨가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5년 9월 4일부터 20여일간 김씨에게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심판결정을 힘에 따라 재판에 회부됐다.

## 공권력 도덕성 먹칠한 '시간끌기'

### 고문기술자 이근안 오리무중 6개월

'고문기술자' 이근안(51) 전 경기도경 공안분장이 잠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지 24일로 꼭 반년이 된다.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3)씨를 고문한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가 이근안 경감으로 밝혀진 뒤 김기춘 검찰총장이 5공비리 차원에서 특별 검거지시를 내리면서 이 경감이 종적을 감춘 것이 지난해 12월 24일.

이씨를 봤다는 목격자의 신고와 밀항하려 한다는 제보가 있기는 했으나 이씨의 행적은 오리무중인 데다 검·경의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이씨 수사를 맡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 4과장 이종찬 부장 검사는 "그동안 검찰 수사관들

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검찰·안기부·보안사 등 대공·공안분야를 같이 담당해온 소위 '관계기관' 가운데 유독 경찰만 당하느냐"는 불만을 내심 갖고 있어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씨 문제를 다루어온 검찰의 태도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우선 검찰총장이 검거지시를 내리면서 사전에 이씨가 도피할 수 없도록 대비를 해놓았어야 하는데도 수사착수 지시만 불쑥 내려 그날로 이씨가 잠적하고 말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고문의 잔학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그렇듯 비등했는데

1989. 6. 24 국민시선 차단위해 '경찰 비호' 속 도피설

### 김근태씨 고문경관 재판뒤 나타날 가능성

을 동원, 이씨 연고지 등을 살살이 탐문했으나 전혀 소득이 없었다"며 별다른 엄격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오는 28일 시작되는 백남은·김수현씨 등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찰관 4명에 대한 재판결과를 지켜본 뒤 이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이들은 "이씨가 백씨 등의 재판 이전에 나타나면 백씨 등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 잠적 초기에 경기도경 안에 설치, 운영하던 '이 경감 검거반'을 사실상 가동치 않고 있다. 경찰은 검찰총장의 검거지시가 있을 때부터 내심 불만에 차 있었고 일선 조직에서는 "왜 경찰만 회생양이 돼야 하느냐"는 반발이 드세게

도 경찰이 재야·학생사건의 경우엔 아낌없이 내걸던 '현상금·1계급 특진'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높다. 검찰은 또 윤재호·김수현씨 등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경찰관들의 김근태씨 고문 관련 국회 위증부분에 대해 "김근태씨가 전민련 수사와 관련 도피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중지 처분함으로써 국민 여론과는 확실히 다른 길을 택했다.

'고문 기술자' 이씨는 어디에 있을까? 그 첫번째 가능성은 '경찰비호 속의 도피'이다. 도피 초기 이씨는 대공·공안분야의 전·현직 경찰관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졌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씨는 고문의 '공범' 관계일 수밖에 없는 상관·동료·부하들과 만나 앞으로 닥쳐올 '법의 심판'에 대비, 책임분담을 해

놓았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후 지금까지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은밀한 장소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해 크게 의문을 제기하는 이는 별로 없다.

두번째 가능성은 '해외도피'이다. 지난 2월초 '일본 밀항설'로 전남 여수항 일대가 발각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 출국금지자인 이씨가 밀항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밀항 루트를 뚫는 과정, 또 외국에 나가서의 체류 방법 등 이씨 혼자 해결하기엔 벅찬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조직 등 당국의 배려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세번째 가능성은 단도감적이 다. 이는 검찰·경찰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표명해온 공식 견해로,

"어떤 사람이 마음먹고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것이다. 검찰·경찰 관계자들은 "이씨는 대공전문가로 변장술·은신술 등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장기간 동안 비용 조달 등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이 가능성은 설득력이 약해진다.

이씨 문제에 관한 당국의 기본 방침은 '시간끌기'로 보인다. 공권력의 도덕성·정당성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밖에 없는 이씨 문제를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국민의 시선으로부터 먼 데 치워둠으로써 우선은 위기상황을 넘겨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5공의 추악한 잔재를 빨리 셧어내는 것이 오히려 공권력의 도덕성을 높이는 치름길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문화진 기자〉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특가법 독직폭행 적용

1989. 6. 28

지정변호사 박혁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3)씨 고문 사건의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인 김창국 변호사는 22일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에 백남은(53·전 치안본부 대공분실 소속 경정) 피고인 등 고문경관들의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냈다.

형법상의 독직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특가법상의 독직폭행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경관 4명 고문사실 모조리 밝혀

김근태씨 사건 첫 공판 이근안 경감 가담도 부인  
입정 제한하자 민청련 회원 항의소동

1988. 6. 29 1988. 6. 29 5000원-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3)씨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 위반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백남은(53) 경정, 김수현(56) 경감, 김영두(50)·최상남(41) 경위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2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사건발생 3년9개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지 6개월 보름 만에 열린 것으로 공소유지담당·지정변호사인 김창국 변호사의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있었다.

김 피고인 등은 "지난 85년 9월4일부터 24일까지 김근태씨를 연행해 △김씨가 민청련이 주최한 각종 집회를 주도했는지 여부 △당시 '깃발'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민주화추진위원회' 관련자 문용식·이을호씨에게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전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사실은 있으나 고문이나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고문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또 "김근태씨가 가장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는 9월8일에는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판계로 김영두·최상남 피고인은 대공수사단의 관행상 집에서 쉬고 있었다"며 "백남은 경정은 수사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4명의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두 경위, 김수현 경감, 최상남 경위, 백남은 경정. <김연수 기자>

협조를 요청받아 초기수사에 참여했을 뿐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피고인 등은 "지난 86년 12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9월8일에 김근태씨를 조사한 일은 있으나 고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은 9월8일에 출근했음을 시인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문사실만을 염두에 두

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말끝을 흐렸다.

김 피고인 등은 "이근안 경감이 경기도 경찰국으로 옮겨간 이상 소속이 다른 경찰관이 수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 "상식적으로 전기고문을 하면 감전돼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물고문은 물론 전기고문이 어떤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한다"고 이 경감

의 수사참여와 고문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방청객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김근태씨 부인 인재근씨, 민청련 회원 등 2백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법정 밖에서는 재판부의 입장제한으로 재판정에 들어오지 못한 민청련 회원 등 50여명이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열리는 2차공판을 위해 인재근씨, 민주위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구속됐던 문용식 씨 및 당시 김근태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상철 변호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경찰관들 변호인쪽은 지난 85년 9월 이근안 경감이 작성한 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 心證확인할 증거확보 관건

金槿泰씨 고문경관 公判쟁점과 전망

前민청련의장 金槿泰씨 (43) 고문재정신청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친지안본부 대공수사단 金秀顯경감 (56)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金鍾植부장관사) 심리로 28일 열렸다. 이날 재판은 5共시절 시국사범에게 저질러진 고문등 가혹행위에 대한 사법차원의 5共청산으로 부천서성고문사건의 文貴童피고인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찰관등 15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사건 접수후 10개월만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두달뒤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이에 金씨의 부인 印在謹씨와 柳宅馨변호사등 7명의 변호인단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5일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趙悅來부장관사)는 金경감등 4명을 재판에 회부하는 付審判결정(공소제기명령)을 내렸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金특별검사는 이미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을 구속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관례는 이해적인 것」이라고 전제, 재판이 시작된 후 특별검사로부터 기록을 제출받아 구속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판전망】 金특별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각각 신청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1989. 6. 29. 토

## 경합범인 정땐 최고 22년刑까지 재판결과따라 수배李根安씨등에 영향

金槿泰씨 고문사건 발생후 3년 6개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된지 6개월여만의 재판이다.

金경감등 4명의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85년 9월 친지안본부 대공분실에서 金씨에게 물고문·전기고문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특별검사)가 「실체적 진실」입증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칠일 고문 증거조사 활동이 주목되고 있다.

【金槿泰씨 사건】 金씨는 85년 8월 24일 삼민루 배후조종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7월 1일 국가보안법등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金씨는 당시 친지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조사받으면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고문경

【재판】 지난 1월이 사건 공소유지당일 金昌國변호사는 사건이 부천서성고문사건과 달리 당시 검찰수사기록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 金槿泰씨와 피고인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처음부터 다시 방증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4년전 밀실에서 은밀하게 행해진 혐의(고문)사실을 지금 입증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심증」 이외에 金경감등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될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金특별검사는 金永斗경위의 경우 당시 담당검사가 「고문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단순히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만 대답했으나 최근 다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라고 주장하는 등 치밀하게 사실

을 벌이는 등 몇차례의 심리를 거친후 오는 9월이후 1심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金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는 형법상의 독직폭행죄(5년이하 징역)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의2제1항의 가중처벌규정(1년이상 15년이하 징역)이 적용되게 됐다. 고문행위가 수차례였던 것으로 인정되면 경합범이므로 형이 가중돼 최고 22년 6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 사건 재판결과는 현재 수배중인 「고문기술자」 李根安경감(51·전경기도경공안분실장)에 대한 국회 사법처리 및 金경감등에 대한 국회 위증고발사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韓炳權기자〉

# “고문상처 3명이 함께 봤다”

500고문-김근태

김근태씨 사건 공판서 부인 증언  
1989. 7. 20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3)씨 고문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sup>38</sup> 수현 경감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2차공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소유지를

## 검찰 송치후 면회때

담당한 김창국 지정변호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의 부인 인재근(37)씨와 퇴번위사관과 관련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복역중 지난해 풀려난 문용식(30)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상철 변호사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인재근씨는 증언을 통해 “지난 85년 9월26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지검 5층 복도에서 남편 김씨를 만났고, 이때 김씨는 발을 질질 끌며 걸음을 잘 못 걷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인재근씨는 “내가 어떻게 된 거냐, 많이 다쳤느냐”고 묻자 남편은 ‘아주 많이 당했다’고 말했고 4층 대기실로 돌아가면서 고문당한 시간 날짜·횟수 등을 자세히 얘기했다”며 “남편은 대기실에 들어가기 직전 양말을 벗어 발 뒤꿈치와 발등에 남아 있던 상처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인재근씨는 이때 남편의 발 뒤꿈치엔 반지름 2cm 가량의 상처가 있었고 상처에 머큐리크롬과 흰 가루약이 떨어져 있었으며 살이 벗겨지고 으깨어져 고름이 끼어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인재근씨는 또 “남편의 엄지발가락엔 검게 그을린 자국이 남아 있고 발등에는 검고 동그란 반점이 있었으며 발가락엔 바늘로 찌른 듯한 상처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인재근씨는 이 상처를 그날 서울지검에 면회하려 와 있던 민청련 사건 관련자 이을호씨의 처 최정순씨와 김상철 변호사도 함께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문용식씨는 자신이 85년 8월28일부터 9월21일까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때 김근태씨가 자신이 조사받던 방의 건너편 방인 5층 15호실에서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문씨는 “복도를 통해 2~3

차례 ‘악’하는 찢어지는 듯한 외마디 비명과 낮게 깔리는 듯한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어느 수사관이 나에게 ‘김근태는 독종이라 조서받기 힘들다’ ‘김근태처럼 당하지 말고 순순히 자백하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문씨가 자신이 당한 고문사실을 증언하는 동안 문씨의 어머니가 방청석에서 “어떤 놈이 우리 아들을 그랬어”라며 절규,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공판장에는 전민련 인권위원회 명의의 ‘고문경관을 구속 재판하라’는 유인물이 배포됐다.

김 지정변호사는 다음 재판의 증인으로 김상철 변호사, 김근태씨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김의수씨, 당시 구치감 근무 의경 정창화씨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8월23일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새청사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1989. 8. 21  
金權泰씨 호송원의 증언

1989. 8. 21  
金權泰씨 호송원의 증언

# “김근태씨 다리 절어 부축해줬다 발뒤꿈치 상처 목격” 증언

1989. 8. 24  
고문경관 3차공판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특  
정법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  
수사단 소속 경찰관 김수현 백남  
은 김영두 최상남 피고인 등에  
대한 3차공판이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형사지

법 311호 중법정에서 합의22부(재  
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소유지 담당 지정 변호  
사(특별검사) 쪽 증인으로 나온 8  
년 9월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김억수(48)씨는 김근태

씨가 서울구치소에 송치됐을 때  
김씨의 발뒤꿈치에 지름 1cm 가  
량의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보았  
으며 당시 김씨가 “이 상처는 고  
문에 의해 생긴 것”이라고 말했  
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당시 김  
씨가 몸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해

진찰한 사실이 있으며 김씨의 건  
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나온 정창화(26·농업·  
사건 당시 법원 구치감 근무의경)  
씨는 자신이 검사실에 들어가 김  
근태씨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  
간 일이 있으며, 그때 김씨가 다  
리를 절며 제대로 걷지 못했고  
소변을 볼 때 바지지퍼를 정씨  
자신이 내려줘야 할 정도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또 그날 저녁 김씨를  
서울구치소로 송치한 뒤 치안본  
부 대공분실 등으로부터 “오늘  
김근태 고문사실이 새나가 보도  
됐다. 송치담당 근무자가 누구였  
느냐”고 추궁하는 전화가 4~5차  
례 걸려왔다고 말했다.

정씨는 자신이 증인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정  
부 고위 당국자가 “김근태씨를 경  
찰관이 부축해 준 사실이 없다”  
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겠다는 사명감 때  
문에 김창국 지정변호사를 자진  
해서 찾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중법정.

## 이근안씨등 구속 촉구

1989. 9. 6  
민주당 성명

강심재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성명을 통해 “5공 때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씨와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이승완씨  
를 의도적으로 검거치 않고 있는  
것은 5공시대의 정치폭력과 고문  
수사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현정  
권의 비열한 작태를 반증하는 것”  
이라며 이들의 즉각 체포, 구속  
을 촉구했다.

分類番號 : 703 김근태 日字 : 198

당사자  
4명에  
재판에 회부된  
4명  
경관 4명  
金 檍 泰 씨  
金 檍 泰 씨를  
고문한 혐의로  
4 차 공판  
拷問 혐의  
4 차 공판  
20  
의 22부 (재판장  
서울 형사 지법  
합  
증법정에서  
열린)

‘김근태씨 고문’ 위증혐의 윤재호씨

## 검찰, 무혐의처리 드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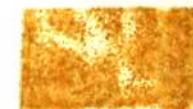
1989. 9. 20 6026-김근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과 관련, 지난 3월13일 국회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됐던 윤재호(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1과장)씨가 지난 8월24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허형구 법무부장관은 8월28일 자로 정동성 국회 내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국회고발사건 처리결과 통보’를 통해 “피의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으나 신문이 중요되 기 직전에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고 이를 철회·시정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5월11일, 참 고인 김근태씨의 소재불명을 이

유로 윤씨를 기소중지한 바 있다.



## ‘전기고문 인체영향’ 증언 들어

김근태씨 사건 4차공판 두통 악몽 등 후유증 커

1989. 9. 21 6026-김근태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20일 전 민 청련 의장 김근태(43)씨에 대한 고문사건과 관련, 특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백남은 경정 등 고문경관 4명에 대한 4차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벌였다.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쪽 증인 황상익(37·서울대·의대 조교수·생리학)씨는 “전기고문으로 인체에 즉각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혈압의 변화”라며 “전기고문을 할 때 인체에 연결하는 전

기도선이 인체에 닿는 부위에 화상이 남을 수도 있으나 식염수 등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피부에 바르면 전기저항이 낮아져 상처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또 “고문을 포함한 가혹행위의 후유증으로 대표적인 것은 두통·불안증세·불면·악몽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85년 7월 민주위 사건과 관련,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던 안병용(27·당시 서울대생)씨는 지정변호사쪽 신문에서 “연행되자마자 마구 구타를 당했으며 이어 육조에 머리를 치박힌 채 물고문을 3번 당했다”고 증언했다.

## ‘고문기술자’ 이근안씨 아내시켜 퇴직금 청구

1989. 10. 5.

경기도경 국감자료

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이씨의 아내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금 청구 요구를 받고 퇴직금 지급을 15일 연금관리공단에 청구했으며, 연금관리공단은 해임 시의 1차 지급액인 퇴직금의 반액을 주거지 관할 국민은행 지점(용두동)으로 전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아내가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자 은행쪽이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 3개월이 지난 8월 14일 퇴직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반환됐다.

이씨는 김근태씨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소환조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88년 12월 16일부터 직장을 무단이탈,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8일 경제위원회에서 해임 의결된 바 있다.

## “拷問관련 수배중인 李根安씨 퇴직금 우편으로 청구해왔다”

국감답변

【水原＝任具彬기자】 고문경  
찰관으로 수배중인 전京畿도  
가 자신의 해임퇴직금을 우편으로 청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4일 국회 내무위의 경기도 감사에서 최낙도·이영권 의원(평민)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경이 제출

하는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이씨의 아내로부터 우편으로

퇴직금 청구를 받고

15일 연금관리공단에 청

구했으며, 연금관리공단은 해

임 시의 1차 지급액인 퇴직금의 반

액을 주거지 관할 국민은행 지점

(용두동)으로 전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의 아내가 퇴직금

을 수령하려 하자 은행쪽이 본인

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3개월이 지난 8월 14일 퇴직금은

연금관리공단에 반환됐다.

이씨는 김근태씨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소환조사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88년 12월 16일

부터 직장을 무단이탈,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

난 2월 28일 경제위원회에서 해

임 의결된 바 있다.

## 3월 퇴직금 우편청구 拷問 수배 李根安경감

【水原＝任具彬기자】 고문경  
찰관으로 수배중인 전京畿도  
경 공안부침장 李根安경감이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혔다.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혔다.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혔다.

【水原＝任具彬기자】 고문경  
찰관으로 수배중인 전京畿도  
경 공안부침장 李根安경감이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혔다.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렸다.

4일 국회 내무위의

도경과장을 대리한 李昌鎬

민이 李경감을

파면시킨

경에 우편청구한 사실이 밝

렸다.



## 발꿈치상처 직접 확인

김근태씨 고문경관 공판 3명 증인신문

1989. 10. 19

김근태씨 고문사건과 관련, 특  
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  
부 대공수사단 소속 백남은 경정  
등 고문경관 4명에 대한 5차공판  
이 1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  
(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  
로 열려 증인신문이 있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당시 서울

구치소 보안과 김용근(52) 교도  
관은 "85년 12월 초순께 주임교도  
관으로부터 '김씨가 상처딱지를  
감추고 있으니 찾아오라'는 말을  
들고 김씨의 방에 가 휴지에 싸  
놓은 상처딱지를 갖고나온다 그  
의 항의를 받고 돌려준 뒤 주임  
교도관에게 욕을 먹었다"면서 "잠  
시후 구치소 부소장과 보안과장

에게 불려가 면담을 마치고 나오  
다 김씨를 불잡아 허리춤에서 상  
처딱지를 다시 빼앗아 부소장에  
게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또 증인으로 나온 강칠선 변호  
사는 "지난 85년 12월 접견당시  
김씨로부터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10여차례 당했다는 사실을 들었  
으며 김씨의 발꿈치와 발가락 사  
이에 난 상처를 직접 확인했다"  
고 말했다. 또 홍성우 변호사는  
"같은날 김씨로부터 전기고문을  
받을 당시 고통으로 인해 발을  
구르다 고문대에 부딪혀 생긴 상  
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고문기술자

# 이근안씨 끝내 잡나

## 수배 1년...“경찰내부서 감싸준다” 여론

1989. 12. 20.

### 검찰관계자 “밀항·피살 가능성”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51·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이 자취를 감춘 지 20일로 꼭 1년이 됐으나 검찰과 경찰은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수사에서 손을 떼 이씨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1일 <한겨레신문> 보도로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자 종적을 감췄고, 김기춘 검찰총장은 12월24일 이씨 검거를 5공비리 차원에서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이같은 김 검찰총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5공청산 종결 시한’으로 잡은 금년말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씨의 행적은 오리무중이다.

대검 중앙수사부에 설치했던 이씨 검거반은 손을 놓은 지 오래 됐고, 경기도경의 수사전담반 역시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한편 김태호 내무부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추궁에 “이씨를 검거한 경찰관에 대해서도 1계급 특진과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19일 현재까지 이씨 체포경찰관에 대한 특진이나 현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은 일선경찰에 내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검거반이 이씨의 연고지인 서울 개포동 아파트, 부인이 사는 용두동 미용실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부산,

공주, 파주, 성남 등지를 탐문해 왔고 이씨가 평소 피부병이 심해 온천지역에 은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대전의 유성온천 등을 수색했으나 허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씨와 함께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56·경감) 등 고문경찰관 4명에 대한 공판이 그동안 8차례 진행됐고, 이 공판 진행 중 이씨가 나타나면 여러가지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경찰조직 등이 이씨를 비호하고 있을 것이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기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가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으며 누군가에 의해 피살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치안본부의 한 간부는 “솔직히 말해 같은 경찰로서 대공수사분야에서 나름대로 공을 많이 세운 이씨를 추적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경찰수사를 독려하느냐에 이씨 체포여부가 달려 있다”고 말해 이씨 검거를 둘러싼 검경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편 이씨에게 현상금 2백만원을 건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등 재야에서는 나름대로 정보망을 동원, 이씨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으나 뚜렷한 단서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전기고문 추정 상처 확인”

1989. 11. 16  
김근태씨 사건 6차공판 김상철변호사 증언

김근태(42)씨 고문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적 폭행)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백남은 경정 등 고문경관 4명에 대한 6차공판이 1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상철(42) 변호사는 “김근태씨가 검찰에 송치된 지난 85년 9월26일 오후 서울지검 5층 김원치 검사실 앞에서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로부터 남편이 전기고문을 여러 차례 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서 “검사실 안에서 김씨의 양 팔꿈치 아래쪽과 발뒤꿈치, 발가락 뒤쪽 등에서 상처를 확인했으며 김씨로부터 고문흔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검찰의 수배 설에 따라 잡적했던 김근태씨가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내 부인 인

씨와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日字 : 1990. 3. 21 所

동아

金權泰씨  
4명 10차 공판  
고문관련

전민청령의장 金權泰씨(44)  
고문관련로 재판에 회부  
된 전처 암부부 대공주사 단소  
속 金秀顯경길(57) 등 4명에  
대한 10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22부(재판장 周  
중이신분과 증거 조사를 모두  
마쳤다.

日字 : 1990. 3. 24 所載 : 12 版  
號 : 703 동아

# 「拷問경관」李根安 잠적 15개월 도피방조 의혹 많다

사에 착수했고 결찰은 지금  
까지 총경의 소재는 물론  
협조자 파악하지 못해 그  
의 도피가 결찰의 방조 또는  
비호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지 시하면서 시작된 총경감에  
다. 지난 88년 12월 24일 金渾春  
경찰총장이 5층 빌딩 척결차  
원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에 아직도 1심에 계류 중인 바람

점검원장 金權泰씨를  
고문죄 혐의를로부터 「전기고  
문기 속자」로 고발된 京畿도  
경찰본부 분장 李根安경감  
(52)이 결찰의 수사 착수 이후  
15개월이 지난 뒤 잘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오전 10  
시 서울형사지법 22부(재판장 周  
중이신분과 증거 조사를 모두  
마쳤다.

## 소재 행적 파악 못해 은신자금 조달 의문

설치된 결찰의 수사 전담반도  
수사의 성과가 없기는 마찬  
가지다. 총경과 함께 金權泰씨를  
고문한 정으로 알려진 前 친  
안부부 대공주사 단소속 白南  
경찰총장을 결찰관 4명에 대한  
한정호로 볼아 李경감이 집  
히면 사건 당시 고위간부 틀의  
나가 金權泰씨 고문에 감당  
할 수가 있다. 李경감이 집  
방을 가늘성이 놓아 결찰이  
수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부 4파에 설치됐던 결찰의  
수사 전담반은 해체됐으며 그  
대신 서울지검을 수사에 수  
사 전담반에 설치됐으나 수사  
활동은 거의 없고 京畿도 경  
찰본부에 설치된 대검찰청 수사  
전담반은 그의 잡것이 장  
기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수사 착수 당시 대검찰청 수사  
전담반은 그의 잡것이 장  
기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구형  
공판은 오는 4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때문에 李경감이  
의 부친은 李경감 학자 람뿐  
만 아니라 다른 고문관련 경  
찰관들에 대한 처벌 및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예정이다.

白경영회 지난 21일까지  
진행된 10차례의 공판에서  
자신을 고문 혐의는 물론  
부인했다. 이를 통해 대한 구형  
공판은 오는 4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 5共 拷問지시자 덮어두려는 인상

李경감이 밀접했던 소속  
도 함께 나를 암살이나 수배종  
재판을 밟기 싫다는 편지를  
보내고 우편으로 사표 제출  
해 은신할 수 있는 것과 함께  
그동안 도피 자리를 어떻게  
조달했는 진도 큰 의혹에  
여 있다.

서울東大門구 龍頭洞에서  
도 광동체임이 있다며 결찰  
수사자회 갈등권을 가진 결찰  
미장원을 결연한 李경감의  
처 申씨(51)는『연락이 없  
어 남편의 생사조차 모를 단  
면서 대검찰관들을 총한  
쪽도 나눠먹는 의리가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일선 결찰관을 사  
의자들에 대한 고문주사에는  
수사자회 갈등권을 가진 결찰  
미장원을 결연한 李경감의  
처 申씨(51)는『연락이 없  
어 남편의 생사조차 모를 단  
면서 대검찰관들을 총한  
쪽도 나눠먹는 의리가 있다』  
고 말했다.

分類：703 | 日期(西暦)：1990. 4. 18

所載：

中央

面

## 金槿泰씨 捏問관련 경관 4명

# 징역 10년~5년씩 求刑

中  
大  
人間性과 고인의 죄를 치밀하게 재판하는 이나라  
특별 검사·瀆職 폭행 죄 등 적용  
人間性과 고인의 죄를 치밀하게 재판하는 이나라  
人間性과 고인의 죄를 치밀하게 재판하는 이나라

金槿泰 고문사건의 前치  
安본부 대검찰청 사단 소속  
직 결찰부 4명에게 징  
역 10~5년이 각각 구형됐  
다.  
이 사건 특별검사인 金昌

國公소유자 담당변호사는 18  
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재판장 姜洪周 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특가법  
(독지 폭행 가중 처벌)과 독  
죄 폭행죄를 적용 金秀顯피  
결정) · 金永과 (52·결정) ·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崔  
商南피고인 (43·결정)에게  
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

했다.   
〈관계기사 16面〉  
金槿호사는 논공분에 석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단순한 결찰관의 가혹행위  
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는 이땅에 인간성을 파괴  
시키는 비인道적인 고통행  
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  
죄해야 한다며 『국내 법과  
제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고  
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  
요성을 강약·증거물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金槿호사는 또 『金씨에 대  
한 고문행위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  
람은 金秀顯피고인이고  
한 고문행위에 있어 가장

수하 3명은

金槿호사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에게 반성의 빛  
을 전해 찾아볼 수 없다」  
며 「그러나 피고인은 경  
안보에 있어서는 안될 국가  
할후원으로서, 특히 국가  
법령일지라도 사정에 계회  
된다.」

金槿호사는 이어 「비록  
피고인들이 85년 9월  
30분 사이 불법연행에  
의하는 金씨를 팬티 차림으  
로 고문대(칠성판)에 넣어  
있어 물고리를 하고 다는  
날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시각 통한 전기 고문을  
하는데 25일까지 가로수를  
구형하고 법을 활용해

정죄고형(15년)은 구형하  
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피고인들은 85년 9월  
30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부터 25일  
간을 걸쳐 3명은

서울구급차로 25분 15킬  
미터를 달려 그동안 11차례  
제판을 받아왔다.

金槿泰 고문사건의 前치  
安본부 대검찰청 사단 소속  
직 결찰부 4명에게 징  
역 10~5년이 각각 구형됐  
다.  
이 사건 특별검사인 金昌  
국公소유자 담당변호사는 18  
일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재판장 姜洪周 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특가법  
(독지 폭행 가중 처벌)과 독  
죄 폭행죄를 적용 金秀顯피  
결정) · 金永과 (52·결정) ·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崔  
商南피고인 (43·결정)에게  
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

했다.   
〈관계기사 16面〉  
金槿호사는 논공분에 석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단순한 결찰관의 가혹행위  
라는 차원이 아니라 다시

는 이땅에 인간성을 파괴  
시키는 비인道적인 고통행  
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단  
죄해야 한다며 『국내 법과  
제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고  
문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필  
요성을 강약·증거물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金槿호사는 또 『金씨에 대  
한 고문행위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사  
람은 金秀顯피고인이고  
한 고문행위에 있어 가장

# 金種泰씨 고문拷問 重刑 구형

종야

1990. 04. 18.

198  
- 2월

치안본부 對共요원 4명에 징역 10년·5년

(전) 미청년의장 金種泰씨  
(44) 고문사건과 관리 특정  
별죄가 증거법무반(돌지 쪽)  
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  
활관 4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5년이 구형됐다.  
金種泰씨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지법합의22부(재판장 姜洪周)  
부장판사)실리로 열린 이사

건 결심형판에서 전치안본부  
대공우사단소속 金秀植경감  
(57)에게 10년, 白南根경정  
(55)과 7년, 崔商南경위(43)에게 5  
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발생 4

해 지난 88년 12월 재정신청  
이 밤을 끌어진지 1년 5개월  
만에 1심을 판결심이 이뤄  
졌다.  
금종호사는 놀고를 광해 이  
합과 자살한 유례를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게서는 반성의 빙을 접혀 찾  
아볼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역시 살았다는  
황국방기 어발생한 법행일지  
밀물을 심어주고 고문자는

이유를 밝혔다.  
금경률 등 4명은 지난 85년  
9월 金種泰씨를 남산동대공  
사건이 비록 5년전 제5공  
황국방기 어발생한 법행일지  
발표시 철할수 있다는 점의  
라도 사전개회된 조작적 고  
문행위로서 그 수법의 치밀  
함과 자살한 유례를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게서는 반성의 빙을 접혀 찾  
아볼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역시 살았다는  
황국방기 어발생한 법행일지  
밀물을 심어주고 고문자는

이유를 밝혔다.  
금경률 등 4명은 지난 85년  
9월 金種泰씨를 남산동대공  
사건이 비록 5년전 제5공  
황국방기 어발생한 법행일지  
발표시 철할수 있다는 점의  
라도 사전개회된 조작적 고  
문행위로서 그 수법의 치밀  
함과 자살한 유례를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게서는 반성의 빙을 접혀 찾  
아볼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역시 살았다는  
황국방기 어발생한 법행일지  
밀물을 심어주고 고문자는

명론(NDR) 등에 대해 충족  
하며 죄에 모두 11차례  
에 걸쳐 물고문 전기고문을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재판에 회부됐다.  
金種泰씨는 당시 「김민준」  
배후조종혐의로 서울서부경  
찰서에 연행돼 구류를 살고  
풀려난뒤 곧바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돼 국가보안  
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1  
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복역  
하던중 지난해 6월 특별  
석방으로 풀려났다.  
금경률은 이날 최후진술  
을 통해 「金씨의 고문 주장  
은 모두 불진정 것으로 전혀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金種泰씨가  
부임印在譖씨와 함께 나와 공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이 꼭판과정에서 「빨한대도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전면부정했을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아득  
한 절망감까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 拷問경관 4 고

## 5년 求刑

民國

日字 : 1990. 4. 18 所載

「金種泰씨 사건」 특별검사  
고문사건과 관리 특정  
4명에게 징역 10년·5년  
이 구형됐다.  
金種泰씨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련, 재판에 회부된 고문경관  
4명에게 징역 10년·5년  
이 구형됐다.  
金種泰씨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영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종호사는 논고문에서  
진술은 아무리 강주려해도  
우고 고문자는 반드시 처벌  
받을다는 본보기로 보여고  
고장혹할뿐아  
들이 반성의 빙 세

법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발  
볼이지 못하게 하고 학살이  
문현관 4명은 85년 9  
고문에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22부(재판장  
차원)에서 종합판례장을 구형했다.  
고문은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22부(재판장  
차원)에서 종합판례장을 구형했다.  
고문은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22부(재판장  
차원)에서 종합판례장을 구형했다.  
고문은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22부(재판장  
차원)에서 종합판례장을 구형했다.  
고문은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현대 22부(재판장  
차원)에서 종합판례장을 구형했다.  
고문은 예사로 행해졌다.  
분명국의 오밀을 썼다는 바  
변호사(특별검사)는 18일

이날 법정에는 金種泰씨가  
부임印在譖씨와 함께 나와 공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이 꼭판과정에서 「빨한대도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전면부정했을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아득  
한 절망감까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金種泰씨가  
부임印在譖씨와 함께 나와 공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이 꼭판과정에서 「빨한대도  
판을 지켜봤다. 솔씨는 「이를  
전면부정했을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에 대한 아득  
한 절망감까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金種泰씨

國會重刑區

198  
- 21

치안본부 對共요원 4명에 징역 10

전 미청원의장 金種泰씨  
(4) 고문사건과 관련, 특정  
범죄가 중처벌법위반(특지 폭  
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  
활 4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5)에게 10년, 白南殷경정  
(55)과 金永각경위(52)에게  
7년, 崔商南경위(43)에게 5  
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발생 4  
년을 구형했다.

술집국공수유자단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형사  
지법합의22부 재판장 姜洪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사

해 지난 88년 12월 재정신청  
전 결심합판에서 전치안본부  
대공우사 단속 金秀頤경감  
만에 1심공판결심이 이뤄  
졌다.  
금종호사는 놀고를 함께 이  
사건이 비록 5년전 제5공  
황국망에 발생한 벌행일지  
라도 사전계획된 조직적 고  
발신지 철거한다는 정의를 밝혔다.

문화부로서 그 수법의 치밀

하고 자혹함은 유례를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게서는 반성의 빛을 전혀 찾  
아볼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역시 삐죽거리는  
민음을 실어주고 고문자는  
내려져야 학하고 충렬구현  
이유를 밝혔다.

술집경통 4명은 지난 85년  
9월 金種泰씨를 南營洞대공  
분신로 연행, 서울대 민족위  
배후세력 및 민족민족주의회

拷問경관 4명 10, 5년 求刑

『金種泰씨 사건』 특별검사  
"고문 다시 받못 불이게" 諭告

民國

추구하는 화해가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살고 가기  
각해 복역하다 88년 6월 30  
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총민주와 혁명론에 대해  
주권이며 金씨의 발각사  
이에 전설을 연결, 전기고문  
을 하는 등 강론을 15일까지

고문행위로 수법이 치밀하  
고 잔혹할뿐 아니라 피고인  
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법부

여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금종호사는 고문에는  
전설은 아무리 갈려려 해도  
받는다는 점의를 세우고  
밝힐지도 고민하는 점의를 세

『金種泰씨 고문사건과 관  
련, 재판에 회부된 고문경관  
4명에게 징역 10년 5년  
이 구형됐다.

술집국공수유자단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형  
사지법합의22부 재판장 姜洪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사

고문행위로 수법이 치밀하  
고 잔혹할뿐 아니라 피고인  
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법부

우고 고문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본보기로 보여고  
문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탈  
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술집경통 4명은 85년 9  
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수차례 물고문과 전기고문  
을 하는 등 강론을 15일까지

고문행위로 수법이 치밀하  
고 잔혹할뿐 아니라 피고인  
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법부

받는다는 점의를 세우고  
밝힐지도 고민하는 점의를 세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국공수유자단당변호사  
(특별검사)는 18일 서울형  
사지법합의22부 재판장 姜洪周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사

고문행위로 수법이 치밀하  
고 잔혹할뿐 아니라 피고인  
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법부

우고 고문자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본보기로 보여고  
문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탈  
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술집경통 4명은 85년 9  
월 4일 오후 9시 30분부터  
수차례 물고문과 전기고문  
을 하는 등 강론을 15일까지

고문행위로 수법이 치밀하  
고 잔혹할뿐 아니라 피고인  
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  
고 있어 국민들에게 사법부

받는다는 점의를 세우고  
밝힐지도 고민하는 점의를 세

것이라고 말했다.



## 김근태씨 고문관련 경판 4명

# 징역 10년~5년 구형

김창국 특별검사

1990. 04. 19.

김근태(44)와 고문사건과 관련,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게 징역 10년에서 5년까지 각각 구형 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

## 폭행 가혹행위 특가법 적용

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창국 고소유지담당 지정 변호사(특별검사)는 형법상의 폭행·가혹행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체포·감금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57) 경감에 대해 징역 10년, 백남은(55) 경정과 김영두(52) 경위에 대해 징역 7년, 최상남(43) 경위에 대해 징역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해설 10면>

김 변호사는 논고를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유례를 찾기 힘든 잔혹하고 치밀한 고문행위로, 이 땅에서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전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한 피고인들을 엄벌에

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현씨 등 피고인들은 지난 85년 9월4일 서울대 민추위사건과 관련, 당시 민청련 의장이던 김근태씨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불법연행해 23일 동안 조사하면서 김씨를 팬티차림으로 고문대(속청·칠성판)에 눌힌 뒤 수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86년 1월 대한변협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 등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뒤 88년 12월

서울고법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재판에 회부됐다. 김근태씨는 85년 9월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복역하다 88년 6월30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법정에는 김근태씨와 부인 인재근씨 및 피고인들의 가족, 경찰관계자 등 70여명이 나와 방청석을 메웠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뺨 한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마지막까지 고문사실을 부인하는 데 대해 아득한 절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5월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개인적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잘한 것에 착각한 것이다』  
기본입니다.  
18일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법  
증명 앞 복도에 4명의 고문경험자를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86년 2월 저녁을 헤쳤던 것처럼】  
【85년 9월 8개월 전부터 고문이 전류의 통증이 왔습니다.】  
【그해 10월 10년을 계약한 고통과 함께】  
【피해자는 그동안 고문경험자를 두루 염두에 두고 고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문경험자를 두루 염두에 두고 고생했습니다.】

## 고문警察의 “오리발”

1990. 04. 19.  
『전기고문·물고문』 물고물  
【제작자: 김근태】  
【제작자: 김근태】

1990. 04. 19.  
『제작자: 김근태』  
【제작자: 김근태】

【제작자: 김근태】  
【제작자: 김근태】

103 고문

日字 : 1990. 4. 19

所載 : 韓國

面 :

(2) 200m

전민青聯의장  
金權泰씨(44)  
고문사건에  
관련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반독죄 폭행

# 金權泰씨拷問경관넷 징역 10년~5년 求刑

결과 재판이 진행됐다.  
받아들여져 그동안 11차례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실어 인정돼 88년 12월 15일  
전기 고문등 가혹행위를 한 사  
체이며 판권차령호 고문대  
법원 세법 및 민족민족주의  
분으로 연행, 서울大民推委  
일 金權泰씨를 南營洞 대공  
법원(NDR) 주장을 추  
정한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찰관 4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소유지당당 지정변호사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가혹행위치상) 등을 적용했다. 이로써 이 재판은 사건 발생 4년8개월, 재판 회부 1년5개월만에 결심을 마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가 공소유지당당 지정 변호사쪽이 주장하는 사실 및 증거와 피고인쪽 변호인의 주장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것인

## 고문경관 중형 구형…사법부 선고 관심

지난 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찰관 4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소유지당당 지정변호사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가혹행위치상) 등을 적용했다. 이로써 이 재판은 사건 발생 4년8개월, 재판 회부 1년5개월만에 결심을 마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가 공소유지당당 지정 변호사쪽이 주장하는 사실 및 증거와 피고인쪽 변호인의 주장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것인

받았던 문용식·안병용씨 등의 진술 △‘전기고문 기술자’로 지목된 이근안 전 경감이 검찰 수사차수 이후 계속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고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당당 지정변호사는 또 △검찰이 이 사건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방치하다 피의자들에 대한 형식적 신문에 의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던 점 △변호인단이 김씨의 고문사실을 전해듣고 18차례에 걸쳐 접견하려 했으나 상처가 완전히

문구를 본 적도 없다” “무엇때 문에 고문을 하겠느냐”는 등의 주장은 펴왔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엄밀한 증거’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을 거듭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이 오랜기간을 끌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했음이 명백한 이들을 왜 구속하지 않고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느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신청 채택 결정이 곧 유죄인정은 아니다”라며 구속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직접 알 수 없는, 밀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에서 이 사건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던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

## ‘고문추방 의지’ 판결 반영 주목

### 의무과장등 확인 증언 불구 피고인들 발뺌

가 주목된다.

공소유지당당 지정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밀실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직접피해자인 김씨의 진술과 탄원서 △고문으로 생긴 발뒤꿈치 상처를 김씨의 처와 김상철 변호사가 직접 보았고 서울 구치소의무과장도 이를 확인했으며, 김씨가 증거물로 보관중이던 상처딱지를 교도관들이 강제탈취했던 점 △김씨와 같은 시기에 대공분실에서 조사

아울 때까지 한번도 접견하지 못했던 점 △법원이 고문상처 확인을 위한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청구를 뚜렷한 이유없이 기각했고, 재정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

년8개월 동안 방치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5

공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쪽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을 통해 줄곧 방대한 분량의 경찰 근무일지 등을 동원, 김씨 쪽의 주장이 완전 날조된 것이며, 운동권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고

귀동 전 경장은 지난 88년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속됐고, 피해자 권인숙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5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불구속 상태로 그냥 놓아둠으로써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지적과 함께 고문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이를 경찰관 4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휘·교사·은폐·조작 혐의에 대한 심판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진 기자〉

: 703 김근태 | 日字 : 1990. 4. 19 | 所載 : 한겨레 | 面 :

### 김근태씨 고문 경관 중형구형 안팎

지난 85년 9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김근태 당시 민청련 의장을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경찰관 4명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는 이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가혹행위치상) 등을 적용했다. 이로써 이 재판은 사건 발생 4년8개월, 재판 회부 1년5개월만에 결심을 마치고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가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쪽이 주장하는 사실 및 증거와 피고인쪽 변호인의 주장 사이에서 어느쪽을 선택할것인

받았던 문용식·안병용씨 등의 진술 △'전기고문 기술자'로 지목된 이근안 전 경감이 검찰 수사착수 이후 계속 자취를 감추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김씨에 대한 고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는 또 △검찰이 이 사건 고발·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방치하다 피의자들에 대한 형식적 신문에 의해 무혐의로 불기소처분했던 점 △변호인단이 김씨의 고문사실을 전해듣고 18차례에 걸쳐 접견하여 했으나 상처가 완전히

문기구를 본 적도 없다" "무엇때 문에 고문을 하겠느냐"는 등의 주장을 펴왔다. 이들은 또 무엇보다 '엄밀한 증거'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을 거듭 요청했다.

이 사건 재판이 오랜기간을 끌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했음이 명백한 이들을 왜 구속하지 않고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느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 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정신청 채택 결정이 곧 유죄인정은 아니다"라며 구속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직접 알 수 없는, 밀실에서 벌어진 사건이란 점에서 이 사건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던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문

## '고문추방 의지' 판결 반영 주목

### 의무과장등 확인 증언 불구 피고인들 발뺌

가 주목된다.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징으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밀실에서 저질러진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목격자가 없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직접피해자인 김씨의 진술과 탄원서 △고문으로 생긴 발뒤꿈치 상처를 김씨의 처와 김상철 변호사가 직접 보았고 서울 구치소의무과장도 이를 확인했으며, 김씨가 증거물로 보관중이던 상처딱지를 교도관들이 강제탈취했던 점 △김씨와 같은 시기에 대공분실에서 조사

아울 때까지 한번도 접견하지 못했던 점 △법원이 고문상처 확인을 위한 변호인단의 증거보전 청구를 뚜렷한 이유없이 기각했고, 재정신청서를 접수하고도 1년8개월 동안 방치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과 검찰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 5공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쪽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을 통해 즐끈 방대한 분량의 경찰 근무일지 등을 동원, 김씨 쪽의 주장이 완전 날조된 것이며, 운동권 또는 공산주의자들의 '계획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고

귀동 전 경장은 지난 88년 재판 진행과정에서 구속됐고, 피해자 권인숙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5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선고를 앞두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불구속 상태로 그냥 놓아둠으로써 알리바이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지적과 함께 고문 근절의 의지가 있다면 이들 경찰관 4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휘·교사·은폐·조작 혐의에 대한 심판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진 기자〉



재개 통해 신고를 여기	4명에 걸친 사단 소속 4명에게 재판부로 송고를 했다.	속기소와 구형받은 전처 알부 金秀璵경감(54) 등 대공수	집역 10년~5년을 경찰관 경감(54) 등 대공수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 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일 전민 청廉의장 (44)를 고문한 혐의로 불구	金權泰씨 고문警官 4명宣傳연기 기록아
-----------------------	--	---	---	--	-------------------------------

## 김근태씨 고문경관 선고 연기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돼 독직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서 5년까지를 각각 구형받은 김수현(57)씨 등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12차 공판이 23일 열려 피고 인들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강홍주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지난 2월 법원인 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증인신문을 1명밖에 하지 못한 채 결심을

했으나 기록검토 결과 이전 재판부의 심리 아래 신문이 진행됐던 증인들 가운데 1~2명을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7일 오후 2시.

## 김근태씨 고문 사건

내달 25일 증인신문

1990. 06. 24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김수현(57) 경감 등 4명의 경찰관에 대한 13차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 22부(재판장 강홍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당시 김근태씨의 변호인이었던 김상철 변호사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 오는 7월 25일 신

문키로 했다. 1990. 06. 28.

# 拷問기술자 잠적19개월

## 李根安

# 「안전한곳」 숨었다



주적

고문기술자 李根安전경위  
52. 그는 어디에 있는가.  
술에 있다가 술취져 있는가.  
지복과 수배를 밟게되자 잠적,  
지난 88년 12월 「고문기술자」로  
1년 7개월여가 지난도록 향방이  
모르는 오리동이다.  
李根安경위의 부인 申씨가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東大門구 龍頭洞의 달관  
세방에는 모을도 수시로 겸



李根安씨

찰과 결찰수사관들이 찾아오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 말로 의례적인 것으로 살펴 에 「수배자동향보고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들은 것 이다. 부인 申씨는 남편의 「벌죄 행위」에 대해 좀 염통한 반 을 보았다.

무지이랄까 무단결권특례의 이 유로 해임한다는 통지서가 申씨집에 날아들었을 때 申씨는 「실험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申씨는 이같은 해임통지로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은 물론 골부 뒷돈과 복지금까지도 받을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申씨는 그러나 남편이 어 디에 숨어있는지 남편이 가 장장을 운영해온다 최근 그 끝집에 연락은 해온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끊게 되돌렸다. 그러나 申씨는 남편의 행

을 보았다. 최근 그 끝집에 연락은 해온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끊게 되돌렸다. 그러나 申씨는 남편의 행

## 도피資金 누가 주는듯 가족들 전혀 걱정안해

18면으로 계속

달칠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

고문을 결정하는 사람이 나 그들은 어디 다른 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차를 결정권을 향으로 자기들의 직무를 아니 작업을 추진해 나가면 그

뿐입니다.

지난 85년 9월 치안본부대 졸분실에 강제 출동한 고문을 소속 白南廣경전 54동 경찰관 4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金씨는 또 李根安씨와 함께 자신을 고문한 경위로 기록된 전자 암문부대경수사단과 함께 출동한 고문차를 대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그 고문차를 판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저들도 한두 명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 고문차를 판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저들도 한두 명이 불과하기 때문이다.

金씨는 그룹과 촉씨의 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문차를 판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金씨는 그룹과 촉씨의 부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그 고문차를 판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이다.

## 김근태씨 출정거부 선고연기

1990. 08. 25 방청객 '고문은폐 무죄' 항의시위

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 및 민자당 창당반대 시위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등)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3)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출정을 거부해 오는 9월7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서울형사지법 서기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전민련 결성선언문 등을 뒤늦게 문제삼아 나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보복으로 현상태에서 국가의 형별권에 의해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퇴정, 궐석상태에 서 징역7년이 구형됐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연기된 직후 전민련 이창복 상임공동의장 등

전민련 간부들과 김씨의 부인 인재근(38)씨, 박종철씨 아버지 박정기(62)씨 등은 법정 앞에서 전민련과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 (공동대표 김근태·단병호·양연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박종철씨 고문치사 범인 은폐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범죄의 일부를 기소하지 않는 등 무죄를 유도한 검찰과 사법부가 공모한 것으로 무효"라며 △은폐조작 주범에 대한 재구속 △직무를 유기한 담당검사의 파면과 재판부의 사퇴 등을 요구했다. —

## 김근태씨 3년 선고 전민련 "고문폭로·민주화운동 보복" 비난

### 평민당도 석방촉구 성명

서울형사지법 서기석 판사는 29일 전민련 결성선언문 작성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집행위원장 김근태(43)씨에게 징역3년 자격정지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에 대한 이날 선고량은 지난해 전민련 결성선언문과 관련,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전 상임공동의장 이부영(48)씨 등 전민련 간부 4명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월~2년씩이 선고되고 모두 집행유예 또는 보석으로 풀려난 데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선 뒤

'퇴정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을 나가려 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 낭독을 생략한 채 주문만 읽고 1분여만에 재판을 마쳤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의 부인 인재근씨, 이창복 전민련 상임의장 등 전민련·관계자와 문의환 목사 부인 박용길씨 등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끝난 뒤 인씨

는 "남편은 항소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으나 전민련 상임위에서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련은 김씨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 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 범민족대회에서 엄연히 전민련을 공식기구로 인정했으면서도 이제와서 결성 당시의 선언문 작성 문제삼는 것은 김씨가 5공 당시 자신에 대한 고문사건을 폭로한 데 대한 보복행위"라면서 "김씨에 대한 구속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치보복이며 나아가 민주당 장기집권의 사전포석임이 분명한 만큼 사법부는 고문한 경관을 즉각 구속하고 그를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영달 평민당 부대변인은 29일 김근태씨 실형 선고에 대해 논평을 발표, "김씨를 구속, 중형을 선고한 것은 민주인사에 대한 전형적 탄압사례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김씨를 포함, 시국관련 구속자들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세계 1990. 10. 19.

# 拷問기술자 "李根安씨" 잠적 22개월

## 「 범죄와 전쟁」 능력에懷疑

비호세력 있다" 소문만 무성  
檢警 등 수사기관 신뢰 "먹칠"

盧泰愚대통령이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과 흉악한 처벌에  
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

시기로 본당시 주요 사건에 관계해 그로

부터 행위를 당했다는 피고문통신부는 12월 24일

검찰의 5공수사 종결과 함께 주씨의 수사는

22개월간 수사를 종결한 상태로 1990년 1월 말

경찰이 한편을 해 52세의 李前 경감이 말을 피해 장기간 은신하고 있는 점과 관련 일부

지경으로 이첩했다. 12월 말

자는 태평양제철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대검찰청

98년 1월까지 22개월간 수사를 종결한 상태로 1990년 1월 말

경찰이 52세의 李前 경감이 말을 피해 장기간 은신하고 있는 점과 관련 일부

재보내고 전통을 일선경찰에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 뒤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전쟁과 흉악한 처벌에  
저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한

시기로 본당시 주요 사건에 관계해 그로

부터 행위를 당했다는 피고문통신부는 12월 24일

검찰의 5공수사 종결과 함께 주씨의 수사는

22개월간 수사를 종결한 상태로 1990년 1월 말

경찰이 한편을 해 52세의 李前 경감이 말을 피해 장기간 은신하고 있는 점과 관련 일부

재보내고 전통을 일선경찰에